

조기 위암 환자에서 혈청 종양 표지자의 역할

원자력병원 내과, 일반외과¹

*이상대 · 이석영 · 조장현 · 박수철 · 김진 · 한철주 · 김유철 · 진성호¹ · 방호윤¹ · 이종인¹

배경/목적 : 최근 조기 위암의 발견이 비교적 흔하며 특히, 점막에 국한되어 있고 전이성 림프절이 없는 일부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하여 조기 위암의 침습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치료 방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번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는데 있어 종양표지자인 CEA와 CA19-9를 이용하여 그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5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조기 위암으로 진단 받고 수술을 시행 받은 105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술 전 혈청 종양 표지자와 종양 크기, 분화도, 점막층 또는 점막하층으로의 침윤 정도, 전이 여부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종양 표지자 양성은 CEA>5ng/mL, CA 19-9>37u/mL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결과** : 1) 105명의 조기 위암 환자 중에서 수술 전 혈청 CEA의 양성은 8명, 혈청 CA 19-9의 양성은 5명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CEA와 CA19-9이 동시에 양성을 보인 경우는 1명이었다. 2) 수술 전 혈청 CEA 양성은 종양 크기 ($p=0.82$), 분화도 ($p=0.96$), 침윤도 ($p=0.15$), 전이 여부 ($p=0.67$) 등에 있어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3) 수술 전 혈청 CA 19-9의 양성은 종양 크기 ($p=0.84$), 분화도 ($p=0.65$), 침윤도 ($p=0.02$), 전이 여부 ($p=0.06$) 등의 결과를 보여 침윤 정도와 유의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 : 조기 위암에서 혈청 CA19-9의 양성은 점막하층으로의 침윤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으며 이는 조기 위암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암 수술 후 추적 관찰 중에 발생한 다발성 대장 전이 1예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영지 · 고봉민 · 구현철 · 강지현 · 최현종 · 홍수진 · 김진오 · 조주영 · 이준성 · 이문성 · 심찬섭 · 김부성

서론 : 대장에 전이성 암의 발생은 매우 드물며 전체 대장암의 0.1-1%정도를 차지한다. 원발 병소로 가장 흔한 것은 위암이며, 그 외에 난소암, 자궁암, 췌장암, 유방암, 담낭암 등에서 드물게 대장으로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 위암의 대장 전이는 육아종성 대장염을 닮은 분절성 협착이나 형성성 위조직염(linitis plastica)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크론병과 유사한 양상이나 용종양상으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저자들은 진행성 위암으로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고, 1년 후 대장에 다발성 용기 미만성 병변과 용종양 병변 형태로 대장전이 나타난 1예를 경험하고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 71세 남자 환자가 1년 전 진행성 위암으로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고 추적 관찰하던 중 혈중 암종배아항원(CEA) 상승 소견(309 ng/mL)이 보여 정밀 검사를 위해 내원하였다. 내원시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이학적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검사실 소견에서 혈색소가 8.6 g/dL였고, 다시 검사한 혈 중 암종배아항원(CEA)은 550 ng/mL로 상승되어 있었다.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왼쪽팔정맥 아래쪽과 대동정맥 부위에 림프절이 커져있고 골반 내 소량의 복수가 관찰되었다. 양전자단층촬영술에서 문합부에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하행결장에 국소적인 섭취를 증가 소견이 관찰되었다. 대장내시경 검사 상 맹장에서 직장에 이르기까지 다발성의 용기 미만성 병변과 중심부 함몰을 동반한 용종양 병변이 관찰되었고 조직검사에서 반직세포를 포함하는 전이성 샘암종(adenocarcinoma) 소견이 보여 위암의 대장 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는 3차례 추가적인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았으나 임상적 호전은 보이지 않았다.